



[시장동향] 호주, 코로나19 인력난에 우유 부족 우려

- 공장 가동, 운전자 부족 등 인력난 심화로 공급망 차질



호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며 심각한 우유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운전자 부족으로 유통에도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우유가 부족해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현재 낙농산업을 비롯한 필수산업에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당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음료 업계종사자들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음성 확인을 받으면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출처 : dailymail.co.uk, 1월 11일자 >

[교역동향] 아일랜드, 지난해 유제품 수출 호조

- 3년 연속 수출액 50억 유로 넘어서



아일랜드의 유제품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일랜드 식품청 '보드비아(Bord Bi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의 유아용 특수 영양식 수요는 주춤한 반면 북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3년 연속 수출액이 50억 유로(약 6조 8천억원)를 넘어섰으며, 버터, 치즈 및 분유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EU와 영국이 아닌 국가로의 수출이 50%를 넘어섰고 총 147개 시장으로 유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치즈 수출량이 2020년 대비 15% 늘어났으며, 영국, EU 및 아프리카의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 수출량은 3% 증가했으며, 영국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 미국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1월 13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